

30대 그룹의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분석

2013.10

목 차

< 요 약 >	5
I. 조사개요	6
1. 조사목적	6
2. 조사대상	6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6
4. 조사내용	6
II. 조사결과 : 30대 그룹의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분석	7
1.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7
2. 지원분야별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8
III. 시사점 및 제안사항	10
1. 조사결과의 시사점	10
2. 제안사항	11
<별첨> 「30대 그룹의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결과	13
참고문헌	14

■ 이 자료는 사업팀 윤지훈 연구원이 작성한 것입니다.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EL : 02-6336-0618 FAX : 02-3771-0143 E-mail : jhyun@fkilsc.or.kr

요약

1.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3.7.30~2013.8.29(30일간)
- 조사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13.7) 중 상위 30대 그룹(위크아웃·공기업 제외)
- 조사방법 :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조사 실시(E-mail 조사와 전화조사 병행)

2. 조사결과 : 30대 그룹의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분석

(1)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은 7,97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7,210억 원)보다 10.5% 늘었고, 하반기 계획도 지난해 동기(8,361억 원)보다 1.7%(145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 올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경영실적이 부진하였으나,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은 오히려 증가함
- 이에 따라, 30대 그룹은 올해 총 1조 6,476억 원을 협력사에 지원하여 연초에 수립한 지원목표(1조 6,156억 원)를 2.0%(320억 원)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
 - 30대 그룹의 올해 협력사 지원은 상반기 지원실적(7,970억 원)과 하반기 지원계획(8,506억 원)을 합치면 지난해(1조 5,571억 원)보다 5.8% 증가된 1조 6,476억 원 규모임

(2) 지원분야별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 협력사의 제품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R&D 지원과 내수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해외 판로 개척지원이 전년 동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각각 1.7배, 4.1배가량 늘어난 점이 특징임
 - 올해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해외 판로개척지원이 313.3%, R&D 지원이 70.4% 증가한 반면, 보증·대출지원은 23% 감소함

(3) 시사점 및 제안사항

- 경기불황에도 30대 그룹의 협력사에 대한 지원이 오히려 증가한 현상은 중소기업과 함께 기술을 개발하거나, 해외에 진출하는 등 동반성장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내수침체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동반성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됨
 -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는 대기업의 수요가 높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 분야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중견·중소기업들도 1차 협력사와 2·3차 협력사간 동반성장에 적극 동참해야 함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경기가 어려울수록 대기업은 협력사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에 함께 진출하는 등 긴밀한 협력으로 기업생태계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30대 그룹은 올해 초, 협력사에 대해 약 1조 6,000억 원의 연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동반성장 실천의지를 밝힌 바 있음
- 이에, 30대 그룹이 당초 협력사 지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어떤 분야에 지원의 역점을 두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한편, 당초 지원목표 달성을 위한 보완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2. 조사대상

- 조사대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13.7) 중 상위 30대 그룹
- 공기업·위크아웃기업·외국계 기업 제외하고, 차순위 기업(한진중공업, KCC 등) 포함
- 조사응답률 : 83.3%(30개 그룹 중 25개 그룹 회신)

3.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 조사방법 : 주관식 서술을 통한 설문지 조사 실시. 전자메일 조사와 전화 인터뷰 병행
- 조사기간 : 2013. 7. 30 ~ 8. 29(30일간)

4. 조사내용

- 30대 그룹의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 판매·구매지원, 보증·대출지원, R&D, 생산성 향상 등 30대 그룹의 협력사에 대한 상반기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협력사 지원 우수사례, 정책과제 등
- ※ 본 조사는 대여성 자금지원 등 대기업의 비용부담이 없는 간접지원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대기업이 협력사 지원을 위해 사용한 실제 지원금액만을 집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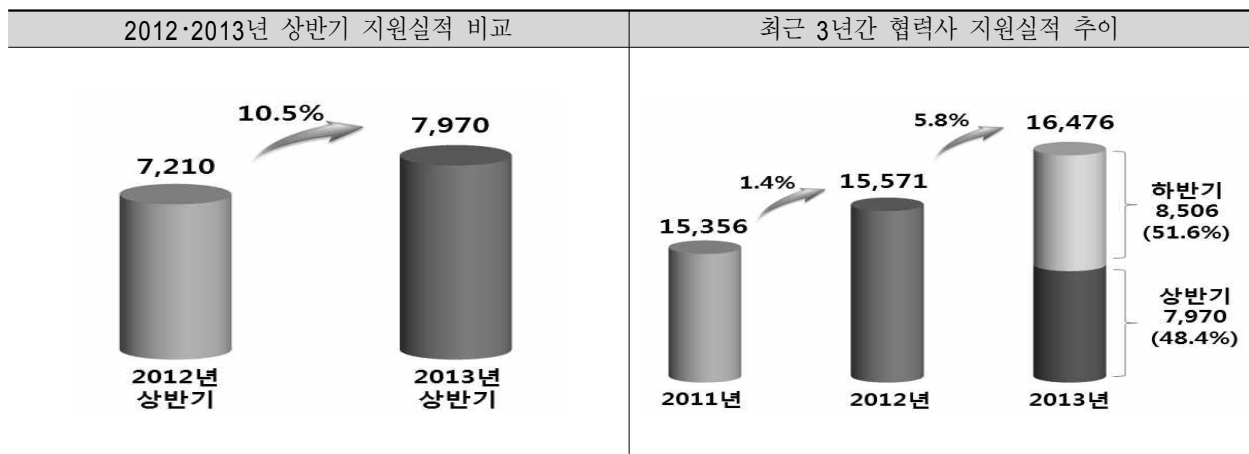
Ⅱ. 조사결과: 30대 그룹의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분석

1.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규모

- 30대 그룹의 올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은 7,970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7,210억 원)보다 10.5% 늘어남
 - 올 상반기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대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경영실적이 부진하였으나,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은 오히려 증가함
 - 600대 기업의 상반기 기업경기실사지수¹⁾가 지난해 93.1에서 올해 상반기 중 91.3으로 하락하여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난해보다 낮음
 - 경기회복이 지체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상반기 협력사 지원을 늘린 것은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불황을 함께 극복하겠다는 대기업의 강력한 동반성장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됨
- 이에 따라, 30대 그룹은 올해 총 1조 6,476억 원을 협력사에 지원하여 연초에 수립한 지원목표(1조 6,156억 원)를 2.0%(320억 원)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30대 그룹의 올해 협력사 지원은 상반기 지원실적(7,970억 원)과 하반기 지원계획(8,506억 원)을 합치면 지난해(1조 5,571억 원)보다 5.8%(905억 원) 증가된 1조 6,476억 원에 달함
 - 이는 30대 그룹이 올해 투자를 당초(148조 8,000억 원)보다 4%(5조 9,000억 원) 늘리기로 결정하여 해당 분야와 관련된 협력사 지원도 투자 계획에 맞춰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됨

<30대 그룹의 2012·2013 상반기 지원실적 비교 및 최근 3년간 추이>

(단위 : 억 원)



1) 기업경기실사지수 2012·2013년 상반기 조사결과(전국경제인연합회, 2013.8)를 평균하여 산출(실적, 계절조정치 기준)

2. 지원분야별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 지원분야별로는 협력사의 제품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R&D 지원과 내수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해외 판로개척지원이 전년 동기보다 올해 상반기에 각각 1.7배, 3.1배가량 늘어난 반면, 보증대출지원과 인재양성 지원은 각각 23.0%, 16.2% 줄어든 점이 특징임

○ 지난해 상반기 분야별 지원은 국내 판매·구매지원(34.7%), 보증·대출지원(27.9%), 생산성 향상(18.9%), R&D(14.3%), 인재양성(3.6%), 해외 판로개척지원(0.6%) 順으로 비중이 높음

○ 반면, 올해 상반기는 국내 판매·구매지원(34.3%), R&D(22.0%), 보증·대출지원(19.4%), 생산성 향상(19.3%), 인재양성(2.7%), 해외 판로개척지원(2.3%) 順임

<30대 그룹의 분야별 2012·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비교>

(단위 : 억 원, %)

	R&D 지원 (비중)	생산성 향상 (비중)	인재양성 지원 (비중)	보증·대출 지원 (비중)	해외판로 개척지원 (비중)	국내판매· 구매지원 (비중)	총계
2012년 상반기 실적(A)	1,029 (14.3)	1,365 (18.9)	260 (3.6)	2,012 (27.9)	45 (0.6)	2,499 (34.7)	7,210 (100.0)
2013년 상반기 실적(B)	1,753 (22.0)	1,534 (19.3)	218 (2.7)	1,549 (19.4)	186 (2.3)	2,730 (34.3)	7,970 (100.0)
증감(B-A) (증감률)	724 (70.4)	169 (12.4)	-42 (-16.2)	-463 (-23.0)	141 (313.3)	231 (9.2)	760 (10.5)

□ 다만, 인재양성(47.1%), 보증·대출지원(43.6%), 생산성 향상(38.9%), 해외 판로개척지원(24.1%)은 상반기 집행률이 연간 지원목표의 50%에 못 미쳤으나, 하반기 중 해당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당초 지원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것으로 분석됨

○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해외 판로개척지원(215.6%), 보증·대출지원(29.2%), 생산성 향상 지원(24.4%)의 증가폭이 큼

- 반면, 상반기에 지원규모가 컸던 R&D 지원은 28.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됨

<30대 그룹의 분야별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과 하반기 지원계획 비교>

	R&D 지원 (비중)	생산성 향상 (비중)	인재양성 지원 (비중)	보증·대출 지원 (비중)	해외판로 개척지원 (비중)	국내판매· 구매지원 (비중)	총계
2013년 상반기 실적(A)	1,753 (22.0)	1,534 (19.3)	218 (2.7)	1,549 (19.4)	186 (2.3)	2,730 (34.3)	7,970 (100.0)
2013년 하반기 계획(B)	1,249 (14.7)	1,908 (22.4)	245 (2.9)	2,001 (23.5)	587 (6.9)	2,516 (29.6)	8,506 (100.0)
증감(B-A) (증감률)	-504 (-28.8)	374 (24.4)	27 (12.4)	452 (29.2)	401 (215.6)	-214 (-7.8)	536 (6.7)

- 이와 같이 협력사에 대한 기술개발과 해외 판로개척 등 각 지원분야별로 30대 그룹의 지원이 늘면서, 협력사 매출이 늘고 경영성과가 향상되는 우수사례도 많아지고 있음
- (해외 판로개척지원 사례) GS홈쇼핑은 태국, 인도네시아에 있는 합작 홈쇼핑사의 전체 편성분량의 70% 이상을 한국의 중소기업 상품으로 방송하고 있음
 - 이를 통해 올 상반기 중 해피콜, 휴롬, 네오플램 등 45개 중소기업 제품 500만 불을 수출하는 쾌거를 거뒀고, GS홈쇼핑은 올해 말 1,000만 불 수출탑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
 - (국내 판매·구매지원 사례) 롯데백화점은 입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테스트 마케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POP-UP Store ‘THE WAVE’와 21개의 자주 편집숍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11개의 브랜드가 백화점에 성공적으로 입주하도록 지원함
 - * POP-UP Store : 매장 내 기본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협력사가 저비용으로 고객 선호도를 테스트하고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매장으로, 판로가 없는 우수 중소/영세 브랜드를 개발하는 효과가 있음
 - (R&D 지원 사례) 두산엔진은 협력사인 엘피케이와 공동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외국 기업에서 독점 판매하던 선박엔진의 부품 6종을 국산화하는데 성공함
 - 그 결과 엘피케이는 두산엔진과 연간 44억 원 규모에 달하는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연매출이 15%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거둠
 - (생산성 향상 지원 사례) CJ제일제당은 협력사의 품질·위생관리 및 관련 기술 전수를 전담하는 ‘상생협력팀’을 2012년 4월에 31명 규모로 신설함
 - 이후 올해까지 4,700여 시간 동안 협력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설비기술, 위생관리, 품질관리기술, 생산진단기술 등을 컨설팅함
 - (인재양성 지원 사례) LG CNS는 신입 인력 채용 및 양성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협력사의 고충을 해결하고, SW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해 LG CNS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협력사 신입사원양성 지원제도(U-CAMP)를 실시하여 올해까지 총 900여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Ⅲ. 시사점 및 제안사항

1. 조사결과의 시사점

□ 30대 그룹은 경기불황에도 협력사에 대한 기술개발, 판로개척지원을 늘리는 등 협력사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추세임

○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은 8,922억 원(2010) → 15,356억 원(2011) → 15,571억 원(2012) → 16,465억 원(2013)으로 3년 연속 증가함

- 이는 30대 그룹의 동반성장지수 非평가 기업도 협력사 지원에 적극 동참하는 등 동반성장 지수와 같은 정부 시책보다 협력사를 동반자로 인식하는 대기업의 의식 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 예컨대, CJ그룹은 CJ대한통운(물류), CJ CGV(서비스), CJ헬로비전(방송), SK그룹은 SK플래닛(정보통신), SK루브리컨츠(화학) 등 동반성장지수 평가 기업 이외의 계열사도 협력사를 적극 지원함

□ 30대 그룹은 주도적으로 협력사 지원방식을 발굴하는 등 이들 기업의 협력사 지원은 점차 세분화·고도화되는 양상임

○ 지난해 상반기에는 비교적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국내 판매·구매지원과 보증·대출지원이 상반기 실적(7,210억 원)의 62.6%(4,511억 원)을 차지한 반면, R&D, 생산성 향상, 인재양성 등 경쟁력 강화 지원이 36.8%(2,699억 원)에 불과했음

○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장기간에 걸쳐 협력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R&D, 생산성 향상, 인재양성 분야에 대한 지원이 상반기 실적(7,970억 원)의 44.0%(3,505억 원)에 이르는 등 지난해 동기보다 7.2%p(806억 원) 늘어남

- 이는 대기업들이 협력사와의 공동R&D 활성화를 위해 성과공유제에 참여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한 비용절감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활성화된 결과로 분석됨

□ 업체 간 수직구조를 이루고 있는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농업 등 동반성장 실천 주체와 대상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됨

○ 예컨대, 롯데시네마는 올해부터 배급사와 극장의 한국영화 수익배분비율을 50:50에서 55:45로 적용하고, 수익금 지급시기를 영화종료 후 45일에서 월별 정산 후 30일로 단축함으로써 영화산업의 투자-제작-상영-재투자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 CJ제일제당의 ‘즐거운 동행’과 CJ푸드빌의 ‘계절밥상’은 소비자와 농가를 직접 연결하는 채널 역할을 하며 농가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는 등 농가 상생 모델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됨

2. 제안사항

- 정부는 동반성장의 목표를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두고,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이 경쟁력 강화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축해야 함
 - 정부는 동반성장에 대한 기업수요를 반영하여 동반성장의 목표를 ‘대기업 규제를 통한 불공정거래 시정’에서 ‘대·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설정해야 함
 - 그리고 대기업이 R&D, 생산성 향상, 인재양성 등 협력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지원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현행 동반성장지수의 평가체계를 보완하는 등 동반성장의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정책 수단을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음
 - 공정거래협약평가(2013 제조업 기준)에서는 자금지원(13점), 납품단가 조정(10점), 협력사 매출확대지원(6점), 결제수단(10점), 지급기일개선(9점) 등 단기적인 경영안정을 위한 시혜적 지원이 전체 배점의 48점을 차지하고, 기술지원(9점), 교육지원(3점), 인력지원(2점) 등 경쟁력 강화에 대한 배점은 16점에 불과하여 관련 부문의 배점을 상향조정해야 함
-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 효과를 2·3차 이하의 협력중소기업들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천 가능한 동반성장 활동을 자발적으로 발굴하는 등 동반성장 기업문화 확산의 주체로 거듭나야 함
 - 중소기업이 전체의 99.9%를 차지²⁾하는 우리나라 기업생태계 구조상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실천에 소극적으로 임한다면 확산 효과는 미진할 수밖에 없음
 - 실제로 대기업·1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은 정부 정책과 경제계의 자율적인 실천으로 상당부분 진척됐으나, 1·2차 협력사 간 동반성장은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임
 - 2012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73社에서 2차 협력사가 존재하는 37개 대기업의 1차 협력사(11,356社) 중 32.5%(3,690社)가 2차 협력사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으나, 이는 3백만 중소기업의 0.1%에 불과하여 동반성장 확산효과가 제한적임
- 대기업은 협력사 지원을 정부 정책에 의한 일회적·소모적 지원이 아닌 미래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R&D, 생산성 향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려나가야 함
 - 대기업이 자금지원과 국내 판매·구매지원 등 협력사 경영안정지원에 치중한다면 중소기업의 체질개선을 유도하지 못하고, 기업생태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음

2) 중소기업청(2013.4), 「중소기업 관련 통계」

- 따라서 대기업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척할 수 있는 사업영역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이전, 경영노하우 전수, 전문인력 파견, 공동R&D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함
- 예컨대, 국산화율이 20% 수준에 불과한 해양플랜트 부품·장비를 대·중소기업이 공동 R&D를 통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다면, 대기업은 부품·장비 수입비용을 절감하고 중소기업은 납품물량을 최대 4배까지 늘릴 수 있음

| 별첨 |

「30대 그룹의 2013년 상반기 협력사 지원실적 및 하반기 지원계획」 결과

□ 30대 그룹의 2013년도 상반기(1~6월) 협력사 지원실적·하반기(7~12월) 지원계획(요약)

(단위 : 억 원)

	R&D 지원 (비중)	생산성 향상 (비중)	인재 양성 (비중)	보증대출 지원 (비중)	해외판로 개척지원 (비중)	국내판매· 구매지원 (비중)	총계
상반기 실적(A)	1,753 (22.0%)	1,534 (19.3%)	218 (2.7%)	1,549 (19.4%)	186 (2.3%)	2,730 (34.3%)	7,970 (100%)
하반기 계획(B)	1,249 (14.7%)	1,908 (22.4%)	245 (2.9%)	2,001 (23.5%)	587 (6.9%)	2,516 (29.6%)	8,506 (100%)
2013년 (A+B)	3,002 (18.2%)	3,442 (20.9%)	463 (2.8%)	3,550 (21.6%)	773 (4.7%)	5,246 (31.8%)	16,476 (100%)

※ 당초(2013.4.11 발표) 2013년 30대 그룹의 협력사 지원계획 : 16,156억 원

□ 30대 그룹의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협력사 지원실적 추이

(단위 : 억 원)

	R&D 지원 (비중)	생산성 향상 (비중)	인재 양성 (비중)	보증대출 지원 (비중)	해외판로 개척지원 (비중)	국내판매· 구매지원 (비중)	총계
2010년	2,244 (25.2%)	1,563 (17.5%)	268 (3.0%)	802 (9.0%)	17 (0.2%)	4,028 (45.1%)	8,922 (100%)
2011년	4,191 (27.3%)	2,188 (14.2%)	401 (2.6%)	2,987 (19.5%)	320 (2.1%)	5,269 (34.3%)	15,356 (100%)
2012년	2,992 (19.2%)	3,561 (22.9%)	487 (3.1%)	3,081 (19.8%)	980 (6.3%)	4,470 (28.7%)	15,571 (100%)

참고문헌

전국경제인연합회(2013.8), “9월 전망 기업경기실사지수(BSI) 94.4” 보도자료
중소기업청(2013.4), “중소기업 관련 통계”
통계청(2013.9), “월간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